

중년 남성의 여가스포츠로서의 드론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박재흥¹, 박정현², 윤상문³

¹강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강사, ²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³강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Drone Education as a Leisure Sports for Middle-Aged Men

Jae-heung Park¹, Jeong-Hyun Park², and Sang-Moon Yoon³

¹Lecturer, Department of Leisure Sport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²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³Professor, Department of Leisure Sport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²Corresponding author: tissuehouse@naver.com

Received August 17, 2021; Revised September 8, 2021; Accepted September 10, 2021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여러 가지 특성과 학습의 요인, 은퇴 후 심리·정신적 안정과 생애전환을 위한 진지한 여가스포츠 활동으로 드론 교육 경험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중년남성의 여가스포츠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분석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년 남성의 진지한 여가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정립하고 새로운 스포츠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는 2019년 1월 한달동안 시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은 드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30대부터 60대까지 중년남성들이었고, 개별 인터뷰는 대략 60분~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내러티브(narrative)적 인터뷰기법으로 진행하였으나 연구문제에 의거하여 특정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한 질문에 따라 반구조화(semi-structured) 형식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Stebbins(1982)의 ‘진지한 여가’의 구성요소를 분석틀로 하여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지속적으로 읽고 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4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정리되었다. 상위범주로는 계기, 노력, 인내, 발전이며, 하위범주로는 시작의 계기, 지속가능 계기, 활동감, 힘겨움, 열정, 성취감, 제약, 성취욕, 변화가 도출되었다.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n the drone education experience as a serious leisure sports activity for various characteristics and learning factors of middle-aged men, psychological and mental stability after retirement, and life change to determin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eisure sports for middle-aged men. want to explore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it is intended to establish a future-oriented awareness of serious leisure culture and sports for middle-aged men in the future,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ew sports education contents. For this stud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dopted and the interview was conducted during the month of January 2019. The interview subjects were middle-aged men in their 30s to 60s who had participated in a drone education program, and the individual interviews took about 60 to 90 minutes.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a narrative interview technique, but a semi-structured format was additionally used according to the questions prepared in advance for specific issues based on the research question. The concepts were organized by continuously reading and analyzing the data obta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with the study participants, and the groups were categorized into upper and lower categories. Through this process, 4 super-categories and 9 sub-categories were derived. The upper category is opportunity, effort, perseverance, and development, and the lower category is the opportunity for beginning, sustainability, activity, hardship, passion, sense of achievement, restriction, desire for achievement, and change.

Keywords: Middle-aged men, Leisure sports, Drone education, Experience, Narrative



1. 서론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 이후 2026년 초고령화 사회를 예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을 통한 높은 수준의 건강서비스로 길어진 평균수명과 어떻게 노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곧 다가올 노년을 준비하는 대다수 중년 세대들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성공적인 노년에 대한 지식과 학습이 요구되는 세대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중년세대의 노후 준비는 기초적 방법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하고 있다. 정신건강의 안녕과 균형을 위한 심리적·신체적 준비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MZ세대가 말하는 남녀의 개념과는 달리 가족의 경제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지금의 대다수 중년 남성은 다가오는 은퇴와 노후 준비로 불안과 우울을 동반한 생애 위기를 겪고 있다. 동시에 가족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변화되는 생애 전환기를 겪으며 중년 남성의 위기를 통해 성공적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인지한다¹⁾. 이러한 맥락에서 중년 남성은 생애 위기극복과 신체적·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연구가 대두되어야 하며 다가올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과 성공적 인생 전환기의 준비가 시급하다.

인간이 신체적·정신건강의 안녕을 위해 우리가 떠들러는 것은 ‘휴식’이다. 이러한 휴식있는 삶은 일과 삶의 균형을 포함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통해 휴식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내세우는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인의 기본권으로 등장한 휴식있는 삶을 우리는 여가라고 한다. 여가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가란 즐기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더욱 정화시키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며 여가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²⁾. Stebbins는 여가생활을 전문성있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지한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³⁾. Stebbins가 말한 진지한 여가활동은 그 활동의 가치를 통해서 전문기술, 지식, 경험을 축적하는데 있으며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최근 다양한 문화경험이 가능한 시대에 도래하며 여가에 대하여 높은 인식제고와 향후 제 2의 직업으로 삼으려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여가 개념의 확장을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활동을 스포츠로 보고 있다⁴⁾.

여가스포츠활동은 인간에게 건강문제, 여가문제, 고독감, 소외감 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여⁵⁾를 한다. 특히 인간의 불안, 우울,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운동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고독과 소외감 해소를 추구한다. 따라서 중년남성들에게는 성공적 생애전환과 신체·정신건강 균형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여가스포츠가 필요하다. 여가스포츠를 즐기는 중년 남성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며 자기실현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삶의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는다고 말한다⁶⁾. 여가스포츠 활동이 삶의 질을 고양하며 행복 요인의 주요한 측면이라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⁷⁻⁹⁾. 중년남성들의 여가스포츠는 직업전환을 둔 현실 속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되고 있으며 생활체육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진지한 여가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진지한 여가로서 스포츠를 즐기는 중년남성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진지한 여가스포츠 활동이 직업전환의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문적 교육을 요구하는 현장도 늘어나고 있다. 중년을 대상으로 여가스포츠 활동을 통해 성공적 직업전환을 이루게 된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 활동이 단순한 여가행위가 아닌 삶의 일부라 인식되어 본인들이 즐기게 된 여가스포츠에 몰입되어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고 직장생활의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기는 중년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고한다¹⁰⁾.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조성 하는 데는 아낌없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 활동과 직업전환을 겸비한 여가스포츠를 위해서는 중년남성의 특성에 맞춰진 전문성과 지식을 익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년 남성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교육의 필요는 초기 노년이라는 생애주기 변화를 앞 둔 시점에서 심신의 우울, 불안, 낮아지는 지위, 위축되는 경제력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교육 받는 중년 성인들의 특성은 미래를 준비하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공유, 관련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 지면 교육의 몰입도와 참여도가 높아진다¹¹⁾. 청소년이나 아동 학습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중년 남성은 성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취득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무형식이나 비형식적인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경험치를 높이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중년이 되어 교육을 원하는 이유는 생애전환을 앞둔 직업 전환과 직업능력

항상 때문이라고 하였다¹²⁾. Mezirow(2000) 학자는 성인 학습은 개인 스스로 해 념으로 지식과 기술에 대해 새로운 관점 및 재 통합이 일어나며 이를 전환 학습¹³⁾이라 명명하였다. 일반 청소년이나 아동의 학습과정과는 달리 성인학습자는 인생 경험을 학업에 연계하여 기존의 관점을 전환하는 특징을 가진다^{14,15)}.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인 학습 과정은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고 사회생활의 성취감을 주는^{16,17)} 심리 안정의 효과가 있다. 중년을 거치는 성인 학습자에 대한 특성을 연구한 Knowles(1989)는 성인학습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좋아하고 학습을 통해 일상 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하며¹⁸⁾,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이 유용한 학습자원이 된다고 보았다. Lindeman(1926)도 제시한 중년기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보고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성인 학습 동기의 시작은 흥미를 경험하고 충족될 욕구가 기대될 때이다. 둘째, 중년 성인 학습은 인생에 기초했을 때 관심이 생긴다. 셋째, 중년 성인 학습의 가장 풍요로운 자원은 경험이다. 넷째, 자기주도성에 욕구를 가진 것이 중년 성인 학습 특성이다. 다섯째, 중년 성인 학습의 개인차는 나이에 따라 증가함을 보인다¹⁹⁾. 중년 성인 학습은 전환학습 과정을 통해 기존에 정립된 신념이나 고정 관념 등을 심도있게 성찰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과 세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 사회적 관계 및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된다^{13,20)}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년 남성에게 행해지는 여가스포츠 교육은 직업전환 및 생애 경험 전환으로 성공적 노후 계획에 매우 필요한 현상이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준비가 시급함을 보여 준다.

중년 남성들이 생애전환이나 직업전환을 연계되는 여가스포츠를 찾는다면 앞으로 가장 요구도가 높은 직업영역에서 찾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중년 남성 학습자 특성상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기술 습득,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의 선호, 새로운 관계와 가치관을 정립, 심리·정신적 안정을 요구하는 바 이 모든 것을 균형있게 교육할 수 있는 장(field)은 여가스포츠와 관련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직업군과 여가스포츠의 양상이 4차산업 위주로 그려지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가 4차산업 위주로 급변하는 산업 및 여가, 소비문화에 대해 신산업 4대 직종군 중 하나로 ‘항공드론’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¹⁾. 국내 드론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해 드론 판매 수는 1만대 이상으로 추정²²⁾되며 2014년 드론 조종자 자격취득 법제화 이후 2021년 6월 현재 56,376명으로 매 해 1만 여명 이상이 드론 조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²³⁾. 한 해 1만명 이상의 드론 조종자가 배출 되기 위해 전국의 수백 개의 교육원이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되어 있다. 드론 조종 교육프로그램은 국토부에서 인정한 드론 전문 교관이 교육하는 전문교육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년 남성들이 드론에 높은 관심과 열광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면 중년 성인 학습자의 특성처럼 직업전환에 용이하고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진지한 흥미와 재미 유발, 자격증 취득,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가스포츠를 즐기는데 교육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여러 가지 특성과 학습의 요인, 은퇴 후 심리·정신적 안정과 생애전환을 위한 진지한 여가스포츠 활동으로 드론 교육 경험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중년남성의 여가스포츠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분석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년 남성의 진지한 여가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미래지향적 의식을 정립하고 새로운 스포츠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중년남성들이 진지한 여가를 즐기기를 위한 스포츠 활동의 일환인 드론교육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뷰는 2019년 1월 한달동안 시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은 드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30대부터 60대까지 중년남성들이었고, 개별 인터뷰는 대략 60분~90분 정도 소요되었다.

Table 1. In-depth interview Individual interview subject

No.	성명	성별	나이	직업
1	A	남자	37	자영업
2	B	남자	49	전업주부
3	C	남자	53	자영업
4	D	남자	61	회사원

연구문제에 의거하여 내러티브(narrative)적 인터뷰기법을 사용하나,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형식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반구조화 형식의 인터뷰는 표준화된 질문지나 인터뷰를 사용할 때보다 비교적 개방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응답 자유도가 높을 수 있는 인터뷰 상황만들어주는 것이다²⁴⁾. 연구자는 질적연구에서 특정 기준을 가지고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질적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소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는 ‘갈때기식’으로 연구 자료를 심도있게 파고 들어가는 연구방식이 필요로 한다. 내러티브 인터뷰에서는 피조사자에게 ‘지금까지 진지한 여가로서의 드론교육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에 대해 말해줄 것’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드론 교육 관련된 경험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연구 자료를 수집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전화, 문자를 통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내러티브 연구는 한 개인이나 적은 인원의 경험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계기, 노력, 인내, 발전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의 경험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Table 2. Guide questions used in in-depth interviews

<질문내용>
1. 진지한 여가로서의 드론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험
2. 드론교육의 계기
3. 드론교육을 위한 노력
4. 드론교육을 위한 인내
5. 드론교육 경험을 통해 발전된 것

2.2 자료분석

본 연구는 드론교육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경험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사작업이다. 이를 통하여 면담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컴퓨터에 기록하였다. 둘째, 주제별 약호(coding)의 개발과 적용을 하였다.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특정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의미와 내용이 갖는 의미에 맞는 용어를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발생하는 주제와 의미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약호화된 자료의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 가능한 새로운 범주와 내용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tebbins의 ‘진지한 여가’에 대한 구성요소를 정리한 김병훈·서광봉(2015)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중년 남성들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드론교육 참여자의 경험을 계기, 노력, 인내, 발전의 4가지 범주로 나누고 하위범주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4명의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관찰이 함께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들을 약호화를 하고 의미 범주화와 개념화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²⁵⁾.

2.3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신뢰성 준거들에 의거하여 삼각검증법, 참고자료의 검토, 동료 연구자의 내용검토, 연구참여자의 내용검토, 연구자의 성찰 등의 단계를 진행하였다²⁶⁾.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두 가지 이상의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대상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정확히 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연구참여자의 검토, 동료 연구자의 내용검토 등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조합한다. 이는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며 이는 자료의 수집과 해석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점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는 연구자가 도출한 연구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되는 현장일지, 사진, 신문, 선행연구, 보고서, 문서 등인데, 이들을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은 도출된 연구결과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²⁷⁾.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실재를 기억하고 해석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동료연구자의 내용검토와 조언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육학 전문가 박사1인과 드론교육의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수행했던 도출된 결과를 공유하여 이에 대한 조언을 받아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드론교육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경험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4명에게 네러티브 연구방법과 반구조화 질문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론교육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경험 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여가 활동에 꾸준히 몰입하는 경험에 대해 Stebbins(1982)의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라는 용어로 처음 제안하였다. 이는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의 반대되는 의미로 여가에서의 지식 추구와 특정기술의 습득으로 전문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김병훈·서광봉(2015)는 Stebbins(1982)의 ‘진지한 여가’에 대한 구성요소를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틀을 재구성하여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지속적으로 읽고 분석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그 무리를 범주화시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4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드론교육 참여자들의 진지여가 경험에 대한 개념 및 범주화는 Table 3^[25]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3. Serious leisure analysis of drone training participants

범주		내용	
계기		시작의 계기	호기심, 타인의 영향, 직접경험
		지속가능 계기	재미와 흥미, 자기향상의 욕구, 기분전환
노력	신체적 노력	활동감	기술향상을 통한 즐거움과 만족
		힘겨움	신체상해, 위험
	정신적 노력	열정	노력과 기술연습
		성취감	실력 향상에 대한 만족감
인내	제약	금전적 부담감, 열악한 제도 현실	
발전	성취욕	기술을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변화	생활과 생각의 변화	

3.1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의 계기

3.1.1 시작 계기

최초로 드론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참가자들은 새로운 시도에 의한 재미와 호기심을 나타냄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참여자들은 고가의 장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종할 때의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국가지원 드론 교육 프로그램은 비용에 있어서도 자유로움을 느끼고 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미래전망을 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용이 좀 나가서... 드론이 보통 300만원인데 기체가 넘 비싸서 쉽게 접근을 못하죠. 제가 다루는 기체는 좀 틀리고. 워낙 고가라서 섬세한 조종이 필요하고 손가락 조종이 섬세해야 하고 생각보다 날리기 쉽지않고 카메라 달고 날리면 되는데 날았는데 넘 쉽지 않고 정말 섬세하고 날리다가 잘못날리면 그대로 추락하면 경비가 다 날라가고 제대로 연습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들어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연습하는데 아무튼 쉽지 않다고 봐요.” (인터뷰대상자 A)

“원래 관심있던건 아닌데 드론교육을 한다는 플랜카드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앞으로의 계획이 거창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런거보고 마음이 확 와닿은 건 사실인데 따져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을 받아보니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격증 따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뷰대상자 B)

“취미라기 보다는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래서 취미로 했으면 작은 드론을 사서 했을텐데 그 친구통해서 앞으로 방향이 이 걸하는게 낫겠다해서 여기까지 오게되었어... (중략)... 전체적인 분위기는 잘 모르겠으나 놀거리가 없어서 그런거 같아요. 솔직히 제 나이가 되면 집사람과의 관계? 집안에서의 역할, 위치가 애매하잖아요” (인터뷰대상자 C)

3.1.2 지속가능 계기

드론교육을 처음 경험할 때의 생소함이나 경계심이 없어지면서 재미와 흥미가 생기고 자신의 기술과 적성,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속적인 계기를 만들게 된다. 처음 드론을 작동하는 단순한 작업에서 벗어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욕구를 단계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를 위해 자기주도적인 단계적 학습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드론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주요인이 된다. 연구 대상자들은 단지 즐거움과 재미, 흥미를 위해 드론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습 욕구로 인해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시청한다던지 인터넷이나 서적 등을 통해 학습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

“재미있고 다른 기술에 비해서는 단시간에 할 수 있고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아직 별 특별한 기술이 없거든요. 새롭게 뭔가 배우기는 어렵고 아직까지 드론은 시작단계니까 진입이 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 성격에 힘들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해서요.” (인터뷰대상자 B)

“저 같은 경우에는 교관까지 하려고 해요. 맛을 봐서 숙달이 되면 못할 이유가 없겠죠.” (인터뷰대상자 D)

3.2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의 노력

드론교육에 대한 경험은 다른 활동보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진지한 여가 경험은 여가 시간이나 활동이 취미 생활과 같은 단순한 의미보다는 여가 활동을 통해 자기발전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Stebbins, 1992)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 교육 참여자의 긍정적 경험과 기술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과정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자들은 드론 교육을 통한 활동만으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스스로 드론교육을 이용하여 기술을 구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약된 환경 속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견하면서 학습을 꾸준히 하고 싶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다른사람과 연계되어 많이 영켜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드론을 하면 그런 것도 없을 것 같고... 공보면 차고싶듯이 드론을 보면 날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네요.” (인터뷰대상자 B)

“생각대로 안되고 눈파로 손파로 다 따로따로 이니까... 그래도 현재는 학과시험을 준비하고 집에서는 손가락 익히는 중에 있어요. 재미 있어요. 남자들은 이런거 좋아하죠. 남자들은 이런거 비싼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중략)...일하면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내가 하는 성격?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거 같아요. 보험 같은거...” (인터뷰대상자 C)

3.3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의 제약

연구 대상자들은 드론교육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금전적 제약을 경험한다. 금전적 제약은 드론교육이 다른 여가 활동에 비해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데서 나오는 제약이다. 고가의 장비들이 연구 대상자들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즐기기에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느끼는 제도적 제약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드론교육 환경이다.

“고가의 취미가 되겠죠. 근데 저 교육용 드론은 초경량 비행기라고 보셔야 해요. 비싸요. 방제용드론은 1대에 1800만원 정도 해요. 차한대 값이죠. 드론 사업에 대해 진입 장벽이 좀 힘들어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스키, 골프를 이야기 하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도 하죠. 드론도 지금 고가이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 같아요” (인터뷰대상자 A)

“저는 교육비 부담이 있어서 추가교육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면허만 따려고 합니다... (중략)...수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수주하는지... 거기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알면 가서 해 볼 텐데.. 수요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사업자등록을 내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아직 드론사업에 대한 시장조사가 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없어서...” (인터뷰대상자 B)

“교육비 정책에 대해서 아직 들어본 것은 없네요. 미국은 헬리콥터처럼 생긴거 타고 시장에도 가고 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 드론주차장과 같은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정책하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있어야 규제방안은 있는데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맡은 들었는데 법규가 뭐지?라고 생각하죠. 걸로만 보이는, 생각만하는 정책이 있어요. 예를들면 퇴직하는 사람들 교육시켜서 다른데 취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교육해서 취직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 취업연계하는 기관들에 대해 돈벌이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인터뷰대상자 D)

3.4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의 발전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드론교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 발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은 드론교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취미, 선호하는 역할, 인생의 가치 등의 자아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과 영역을 찾아가는 모습과 그 과정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즉, 교육 참여자들의 처음 시작단계에서 보여졌던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다소 수동적·의존적 자아는 점차적으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자아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4.1 성취욕

연구 대상자들은 기계적 한계나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낙오하고 그 만두는 것이 아닌 더 욕심을 부리는 성취욕을 느꼈다.

“작년에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 드론 조종사를 소방소에서 특채로 뽑은 걸로 알아요. 그런걸 보니 잘 날리는 사람도 없고 운영하는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며칠 전에 소방서에서 드론을 샀는데 자기네들도 비싼거 망가질까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적 운용인력이 없어서요.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160여개 드론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소방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정찰을 하고 인명구조도 가능하고 영화에도 무수하게 날리는 걸로 알아요. 저는 가르치는 직업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인터뷰대상자 A)

“저희는 조종자라고 합니다. 비행기모는 사람을 조종사라고 하구요. 그만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요.”(인터뷰대상자 A)

3.4.2 변화

연구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기술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으로 인한 발전으로 나타났다. 기술향상에 대한 목표는 이를 이루기 위해 생활습관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스스로 경쟁이 되어 더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Berlyne(1960)에 의하면 긴장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태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유기체는 그런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극을 추구하게 된다. 이때 유기체는 적절한 긴장을 유발할만한 잠 재력을 가진 자극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너무 적은 정도의 긴장 잠재력을 가진 자극이나 과도한 수준의 긴장 잠재력을 가진 자극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연구 대상자들이 느끼는 경쟁심은 적절한 긴장을 유발시켜 지속적인 활동 참여로 연결된다.

“아무래도 술마시는 기회도 줄어든지 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밤에 공부를 해야 하면 아무래도 술은 좀 그렇죠. 어차피 이론 공부도 해야 하고 부담되니까. 그 자체로 술은 현 시점에 대한 조금의 변화라고 보고 집에서 좀 놀리지만 바깥에 나가는 회수도 줄고하죠.. 와이프가 좋아하죠.”(인터뷰대상자 C)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남성들의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경험을 분석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중년 남성이라는 학습자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통해 드론교육 참여자들에게 진지한 여가의 즐거움과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드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년 남성들의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경험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들의 경험을 포함한 사회·문화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경험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미리 설정한 기준에 맞춰 이루어졌던 기존 양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김병훈·서광봉(2015)의 분석틀을 참고하였고 도출된 중년 남성들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드론교육 참여자의 경험을 계기, 노력, 인내, 발전의 4가지 범주로 나누고 하위범주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4명의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관찰이 함께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들을 약호화를 하고 의미 범주화와 개념화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들은 시작의 계기와 지속가능 계기를 경험한다. 그 다음 노력의 단계로 진입을 하는데 신체적 노력과 정신적 노력을 경험하게 된다. 신체적 노력으로는 활동감, 힘겨움을, 정신적 노력으로는 열정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그다음 인내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기서 금전적 부담감과 열악한 한국의 드론교육 제도와 현실을 느끼게 된다. 이후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기술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성취욕과 이를 위해 생활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겪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 남성들이 드론 교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취미, 선호하는 역할, 인생의 가치 등의 자아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타인과 구별되는 나만의 독특한 모습과 영역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과정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즉, 교육 참여자들의 처음 시작단계에서 보여줬던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다소 수동적·의존적 자아는 점차적으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자아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를 하기 위해 네러티브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남성들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해 드론교육에 참가했던 진지한 여가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서광봉·김병훈(2015)의 분석틀을 통해 교육 현상을 보려고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분석틀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년 남성들의 진지한 여가경험 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을 통한 드론교육 참여자들의 진정한 여가 경험을 분석한다면 중년 남성들의 드론 교육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드론교육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에 대한 경험은, 참여자의 계기, 노력, 인내, 발전으로 범주화되었는데 4개의 요인에서 각각의 하위 요인이 도출되었다. 김병훈·서광봉(2015)은 분석틀에서 진지한 여가의 요인에 대해 시작의 계기, 지속가능 계기, 일상화의 계기, 활동감, 힘겨움, 자부심, 열정, 성취감, 두려움 극복, 단절, 갈등, 제약, 기다림, 경쟁심, 성취욕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일상화의 계기, 자부심, 두려움 극복, 단절 요인은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심도깊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현장에서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드론교육은 ‘안전’에 민감한 여가이므로 드론에 관련해서 안전실태조사와 안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교육 참여자들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드론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드론은 특정한 공간이 필요하며 비행 금지 및 통제구역이 있기 때문에 드론이 대중화가 되기에는 실제적으로 드론이 비행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드론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윤리의 문제가 개인의 몫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기술적·제도적·정책적으로 환경의 제약을 받고 있는 한국의 드론 교육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박지현, “중년남성의 통합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 및 가족관계 만족도 요인을 중심으로”, 웰니스학회지, 제12권 제4호, pp.190, 2017.
2. 김종민, “여가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 스포츠과학논문집, 제22권, pp.5-6, 2010.
3. 최석호, 이미경, 이용재, “진지한여가”, 여가경영, 2012.
4. 김준, 이근모,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자기결정성, 여가제약 협상, 진지한 여가, 운동지속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5권 제2호, pp.88-89, 2012.
5. 이은주, “노인의 여가스포츠활동과 사회적지지, 우울감, 죽음불안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제38권 제4호, pp.54, 2014.
6. 최석환, 김영환, 조윤용, “중년세대의 여가인식과 스포츠가치관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제33권 제2호, pp.109-110, 2009.
7. 박진경, 전호문, 민제호, 나순복, “고등학생의 스포츠 활동정도와 삶의 질의 관계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3권 제2호, pp.783-794, 2014.

8. 원효리, “여가활동으로서의 댄스스포츠가 중·장년층의 몰입경험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1권 제3호, pp.233-246, 2013.
9. 장호중, 김정목, “스포츠 참가자의 건강지각과 건강증진행위 및 삶의 질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85-296, 2014.
10. 함형석, 원영신, 임성철, “두 바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여가활동을 통해 관련 직업으로 이직한 MTB 참여자의 삶”, 한국체육학회지, 제55권 제2호, pp.100-102, 2016.
11. 송선희, 노유석, “중년기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pp.320-327, 2017.
12. 김태은, “한 중년 남성의 생애에 나타난 평생학습 경험 내러티브 탐구”, 인문사회21, 제12권 제1호, pp.2149-2150, 2021.
13. J. Mezirow,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In J. Mezirow & Associates (Eds.), *Learning as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0.
14. 육해숙, “늦깎이 성인학습자의 박사과정 학습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6.
15. 주성희, “경력단절 여성의 생애 진로전환 경험분석: 근거 이론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6.
16. 김한별,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2014.
17. 최은수, 김미자, 최연희, 윤한수, “평생교육론”, 공동체, 2017.
18. M. S. Knowles, “The Making of an Adult Educator: An Autobiographical Journey”, San Francisco, CR: Jossey-Bass, 1989.
19. E. C. Lindeman, “The Meaning of Adult Education”, New York: New Republic, 1926.
20. P. Cranton, “Teaching for transformation”, In J. M. Ross Gordon (Ed.), *Contemporary Viewpoints on Teaching Adults Effectively,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93,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2.
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4.17”, 산업통상자원부, 2020.
22. 박찬민, “레저 활동으로서 드론 운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1호, pp.40, 2016.
23. <https://www.data.go.kr/data/15064468/fileData.do> (한국교통안전공단 2021)
24. U. Flick, “질적연구방법”, 한25, 2009.
25. 김병훈, 서광봉, “여가 모터사이클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질적탐구, 제1권 제1호, pp.127-152, 2015.
2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2: method”,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3.
27. D. J. Clandinin,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강현석 외(역), 파주: 교육과학사, 2007.